

# 환각성 약물범죄와 경호안전상의 대응방안

전 경 수\*

## ◇ 목 차 ◇

- 
- I. 서 론
  - II. 환각성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III. 환각성 약물범죄 사례 연구
  - IV. 환각성 약물 오·남용자의 형태상의 문제점
  - V. 환각성 약물 오·남용자에 대응하는  
경호안전
  - VI.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 

## I. 序 論

마약류라 함은 “인간에게 의존성과 오·남용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에 대한 정의 또한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내성, 즉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금단현상,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한국마약범죄학회 총무이사(전 경찰청 형사국 마약범죄수사관).

아울러 우리나라에도 특별법을 제정 이러한 마약류를 규제하고 있는데 마약법상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관리법상 대마가 있으나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유사하게 환각성을 띠는 약사법에 의한 일반 약물이 개인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다.

이들 마약류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적용받는 소위 환각제(幻覺劑, Hallucinogenic Drugs) 와 사이키델릭제제 (幻覺劑, Psychedelics)라고 불리우는 페이요트캣투스(Peyote cactus)에서 추출한 사이로사이빈(Psilocybin) 및 합성약물인 리제르그산 디에틸아미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 LSD)가 있다.

이들 약물의 주관적 효과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L.S.D가 가장 넓은 범위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의 원형(Prototypye)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환각제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텍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각성과 환각 양면성을 띠는 메스암페타민, 강간, 강도 범죄에 이용되는 로라제팜 등에 의거 발생된 사례 중심으로 고객 또는 주요인사의 경호 안전상 위해가 되고 있는 약물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약물을 남용하는 자가 현재 40만~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sup>1)</sup> 전·현직 주요 인사의 가족, 기업인, 정치인, 연예인들에까지 오·남용되어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II. 幻覺性 藥物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이들 약물은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인식 행동의 변화는 물론 중독이 점점 깊게 진행되는 약물이다. 중독이 진행될수록 환시, 환청, 환촉 등 현실을 왜곡하는 정신병적 증상이 강하게 보이게 되고 내성에 의해 용량이 점차 늘어나면 기질성 뇌증후군 상태로 응급실을 찾아야 될 경우도 있으며, 과다복용으로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 남용자 자신은 종종 행하는 일의 수행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뜻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육체적으로는 복통, 변비, 구갈 등의 증상을 보이며,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 동공축소, 오한, 발한, 식욕억제 및 체중감소, 심한 소양증 즉 가려움증, 심한 눈물, 콧물, 입물 증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sup>2)</sup>

1) 황진수, 한국마약범죄학회보 제6회, 1998, 12면.

2) 이정균, "습관성 약물중독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70, 16면.

정신적으로는 정신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졸음, 두통, 어지러움, 불쾌, 불면, 홍분, 권태감이 나타나며, 나태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과 인식의 둔화는 물론 집중력이 감소되고 통증하며, 졸리고, 명청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남용이 심할 경우, 뇌와 간에 심한 손상을 일으켜 사망하여 자신이 파멸되기도 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예측불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 III. 幻覺性 藥物犯罪 事例 研究

#### 1. 인기 演藝人과 스포츠 選手들에게 필로폰 供給

인기 가수이자 10대의 우상인 H씨(27세)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송에 출연하다 밀고에 의해 1991년, 1994년, 1996년 세차례나 검거되어 구속된 바 있다.<sup>3)</sup>

유명 가수 또는 연예인들에게 환각성 약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인기 사회의 정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쟁자나, 주변 인물로부터 질투 심리에서 연예인들의 감성적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 환각성 약물을 접근시켜 유명세를 과피하기 위한 수법일 수도 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모았고, 최근 밤무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K씨<sup>4)</sup>, 인기 영화배우 P씨<sup>5)</sup>, MBC 텔런트 K씨, 프로야구선수 J씨, 프로야구 빙그레 이글스 투수 S씨<sup>6)</sup> 등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게 된 이유는 한결같이 주변에서 권유하여 호기심에서 한 두차례 복용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키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 2. 필로폰 幻覺狀態에서 運轉 政府綜合廳舍 突進

20대 나이트클럽 무용수 O씨는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서울 중심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모는 등 평란의 질주를 벌이던 중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돌진해 출입문과 차량을 부수고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3) 세계일보, 98. 5. 14, 25면.

4) 중앙일보, 95. 2. 21, 19면.

5) 경향신문, 95. 2. 7, 16면.

6) 서울신문, 91. 5. 23, 25면.

인천시 북구 작전동 O씨는 오후 7시쯤 서울 남대문 광화문 로터리간 차도를 비상등을 켠 채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정부종합청사 안으로 돌진 청사안에 주차되어 있던 당시 외무부 제1차관보의 로얄 승용차와 청사 종문을 들이받은 뒤차에서 내려 인근 사직공원을 거쳐 서울 경찰청 안으로 도주하다 추격한 경찰에 의해 20여분만에 검거되었는데, 자신은 새벽 1시쯤 야간업소에서 영업을 끝내고 강서구 화곡동 여관에서 20대 남자가 필로폰 0.05g을 투약하면 기분이 깨끗해 진다고 유혹하자 이를 구입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뒤 인천 등지를 밤새 배회하다 이튿날 오후 5시쯤 서울로 진입,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sup>7)</sup>

### 3. 前職 國家元首 외아들에게 필로폰 供給

전직 국가원수의 외아들 P씨는 1992년 10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팔레스 호텔 앞 도로에서 일체 불상의 35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면 고민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다는 유혹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속장소에 나오자 필로폰 1~2g을 50만원~100만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12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구매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계속하여 월 1회씩 10여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 투약하다 중독되어 영등포, 청량리 일대의 숙박업소에서 계속 투약하는 등 도합 60여회에 걸쳐 투약하다 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 의명의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어 사법처리 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여서도 의존성과 중독성이 심한 상태로 재투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다시 풀려나왔다.

그리고 약물을 투약한 경력을 보면 군복무시절인 1983년부터 필로폰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1989년 2월 27일 서울지검에 자수하면서부터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투약하여 이미 치료가 불가능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순간 단순한 유혹에 빠져 본인의 정신세계를 백색 악마가루라고 하는 필로폰이 지배하고 있다.<sup>8)</sup>

### 4. 中國產 펜푸루라민이 살빼는 藥으로 遁甲

산업시찰 명목으로 위장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H씨는 중국산 다이어

7) 경향신문, 95. 2. 18, 28면.

8) 경향신문, 90. 3. 7, 28면.

트 약품인 펜푸루라민을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서 뚱뚱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달에 4Kg씩 빼주겠다고 하여 한 갑에 오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일천여갑을 판매하였다.<sup>9)</sup>

약을 구입, 과다 복용한 20대 가정 주부가 정신 이상증세를 일으켜 잠자던 두 살박이 아들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환각상태에서 자신도 하늘나라로 가야 행복하다고 하며 자신의 복부를 수회 찔러 중태에 빠졌다.

이 약물은 전량 중국에서 밀수되는 펜푸루라민으로 거식증상을 유발 다이어트용으로 이용되지만 하루 6~7정 복용시 환각 등 정신착란증세를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품으로 감정되었다.

## 5. 意識을 잃게하는 神經安靜제 로라제팜

30대 중반의 미모의 여성 K씨는 재미교포 독신 사업가로 위장 행세를 하며 고급 나이트클럽과 술집에서 유명 인사의 술좌석에 동석 술을 마시던 중 유명 인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 성분인 로라제팜을 술잔에 첨가시켜 이 사실을 모르고 술을 마신 사회 지도층 유명 인사가 인사불성이 되자 호주머니를 뒤져 금품은 물론, 중요서류와 신분증까지 훔치는 등 100여 차례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는 신분과 명예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sup>10)</sup>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내연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남자가 성행위시 발기가 되지 않아 변태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 소지하고 있던 로라제팜 4정을 넣어 내연의 남편 몰래 넣어 마시게 하였고, 남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타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인근 구멍가게에서 기름을 구입하여 내연의 남편에게 주었고, 남자가 기름을 넣으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므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여자는 내연의 남편을 넘어뜨리자, 내연의 남편이 약기운에 골아 떨어져 수면에 빠지자 옷장 안에 있던 넥타이를 꺼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코자 손가락 지문, 얼굴 등 전신에 기름을 뿌려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도주하다 KBS “사건 25시”에 방영되어 이를 본 시민의 제보로 검거되었다.

9)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보 제2회, 1998, 18면.

10) 부산지방검찰청, 형 제1348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1995.

## 6. 青少年에게 濫用되는 テクストロメ토르판, 카리소프로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알약을 구입, 골목길로 들어서는 것을 연행 조사한 바 인천 중구 송화동 J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서울역 부근에서 기분 좋은 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철을 타고 “이 곳 K약국에서 알약 200개를 2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며 따분하고 지루할 때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봉 뜨고 좋아서 먹는데 주로 비디오방에서 성인용 비디오를 보다 다시 인천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복용한 지도 벌써 2개월 정도 되었고 가끔은 1회 25알식 복용한 후 소주 한 잔을첨가해서 마시면 기분이 더욱 좋아진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환각약물은 러미나나 구이킹이라고 불리우는 텍스트로메트르판제제(진해거담제)와 S정이라 불리우는 카리소프로돌(근육이완제)이다.<sup>11)</sup>

이 약물은 일반의약품(OTC)으로 과다 복용하면 환각성을 띠며 계속 복용할 시 중독증이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약물로 감정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관계당국은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처럼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텍스트로메토르판제제에 대해 판매 단일제를 지정 1회 판매 허용량 400mg으로 한정하도록 고시했다.

## IV. 幻覺性 藥物 誤·濫用者의 形態上의 問題點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약물이 개발되어 적법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국민보건에 유익하게 활용되는 반면, 이러한 약물들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항시 긴장된 분위기와 만성적인 피로를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러한 약물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행하는 약물도 바뀌기 때문에 고객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요원들은 고객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행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추어 완벽한 경호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전경수, 한국마약범죄 학회보 제6회, 1998, 39면.

## 1. 心理的 問題

자아기능의 취약성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자아기능이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들은 대개 불안정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가 적었으며 따라서 자신감도 결여된 상태이다. 이런 사람들은 약물이 주는 효과에 빠져있는 동안만이라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약물 사용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귀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sup>12)</sup>

물론 사회적 영향도 중요하다. 빈곤, 낮은 사회계층, 우범지역 등이 약물 남용과 관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서 자아기능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의존성 약물을 구하기가 쉬우며, 주위에 사용자들이 많이 있는 등 위험요소를 고루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정규적 규범에서 다소 일탈한 집단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sup>13)</sup>

또 한가지는 ‘조건반사’적인 것(학습)으로서 과거에 약물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자동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서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술자리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문제 이외에도 성격적 요소로 가미되는데 위험을 무시한 채 새로운 행동에 뛰어들며 결과로 나쁜 일을 당해도 그런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관련있는 형이다. 이들에게서는 충동적 성향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 動機誘發 問題

체중과다 및 피부미용으로 고민하는 여성과 신경쇠약으로 정력이 약한 자, 조루증 환자들에게 메스암페타민을 접근시키고 연구에 몰두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피로회복제와 정신집중제로, 연예인과 기업인들에게는 피로를 풀어주는 왕성한 활동제로 밤새워 술마신 숙취자들에게는 술 깨는 약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최음제로 개개 사람의 취향에 맞게끔 접근해서 처음 몇 차례는 약효를 실험해 보라고 무료로 공급하여 동기를 유발한다. 실제 강력한 각성 상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숙취 또는 술

12) 강운구, 약물남용의 정신과적 이해 (경찰수사연수소 교재), 125면.

13) 김광익,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실태조사(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 제1집, 1993, 12면.

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는 경쾌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용한 후 원하는 효과 외에도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데 처음 경험으로는 특별한 금단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문제성을 갖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는 대부분 전파자들로 구성된 밀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미 메스암페타민 사용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라고 협박하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게 된다. 또한 약을 중단하려 하면 약을 무료로 주는데 일단 약이 손에 들어오면 십중팔구 다시 사용하게 되어 악순환에 빠져 환각과 각성에서 전락과 환희의 정신세계를 넘나드는 약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 V. 幻覺性 藥物 誤·濫用者에 對應하는 警護安全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작용이라는 경호학적 측면으로 볼 때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속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 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해 사회과학적 이론과 자연과학적 응용을 탐구하여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약물에 대해선 경호 경비 및 사설경비에 대해서도 이러한 약물에 대한 범죄 정보수집과 대응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다.

우리나라 경찰행정상 경호경비라 함은 정부요인, 국내외 주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경호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요인경비 또는 신변보호가 있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sup>14)</sup>

현행법상 인정되는 요인경비는 통상 경호경비라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해 정부요인, 국내외 주요인사의 가족 등에 대해 경찰과 대통령경호원에 의해 실시되는 작용이다. 그리고 경비업상의 경비원에 의해 운영되는 신변 보호작용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미국, 일본과 같이 사설경비 차원의 신변보호의 경비업이 인정되고 있다.

14)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4, 64면.

현재 우리나라로 사설경비기관은 전국에 수십개 업체가 있는 실정이다. 사설 경호원은 사설경비기관에서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기타 일반인 등의 신변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호작용을 하는 자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비업체에 의거 사설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게 하기 위하여 경비 업자는 의무적으로 경비지도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관들에게 경호 경비에 관련된 이들 약물을 분석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약물범죄 방지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1. 誤・濫用者의 行動과 表情 識別

환각성 약물은 주로 주사 또는 경구로 사용하기 때문 1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종류 수, 지혈대, 고무밸트, 끈을 소지하고 있으며 옷소매에 피자욱 등이 묻어 있다. 발목, 팔꿈치 안쪽 등에 주사자욱 및 반복 주사 흔적이나 상처가 있다.

남성은 주로 주사 주위에 문신을 하며 여성은 화장을 하여 상처난 자국을 은폐 또는 가리는 경우도 있다. 사용 투약자의 증세 및 태도변화는 극도로 기분좋은 상태로 활동 한다.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약기운에 의거 생활의 의욕을 되찾고 무엇이든 하는 일이 침착, 정밀, 고도의 정신집중 상태가 계속 되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경질적이다.

그리고 신체적 증상별 행동으로는 식욕상실, 홍분, 다변, 입술·구강의 건조, 호흡곤란, 불면증, 망상적개심, 공항증, 편집증을 띠며 얼굴이 창백하다.

또한 심하게 중독되었을 때는 식욕이 없어 몸은 말라비틀어지는데 황음에 빠져 상대 여자를 못살게 구는 성행위와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중독상태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짐승이나 다름없다. 몸집에 비해 엄청난 힘을 낼 뿐 아니라 맞아도 고통을 못 느끼며 집요하게 반항한다.

## 2. 供給者 索出 및 遮斷

메스암페타민의 형태는 백색 분말 결정체로 용량에 따라 g당 대·중·소형의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것을 판매한다. 10g짜리 중형 이상은 중간 밀매자이고 소형은 투약자에게 밀매하는 소매자이다. 이들은 볼펜이나 지갑 속에 끼워 소지하고 다닌다. 또한 중

류수에 백색 분말을 타서 주사제로 사용하고자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정, 캡슐 (내복 알약) 등 색소도 다양하다.

메스암페타민은 특이한 맛은 느끼지 못한다. 형태와 색깔, 냄새 등은 만든 사람의 제조기술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므로 유판으로는 추정할 뿐이고 빠른 시간 내에 감정기관의 감정,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텍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은 흰색 알약이고 로라제팜은 노란색 알약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유홍업소 종사자나 각종 형사사건, 전과가 있는 무직자들이 접촉 또는 교묘하게 접근 오·남용 투약자들의 현실적인 기본심리를 이용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은밀한 행동 때문에 밀매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투약자 즉 오·남용자들 행동과 표정 변화를 근거로 공급자를 추적할 수밖에 없다.<sup>15)</sup>

투약자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수거 감정하면 투약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데 간단한 시약 하나만으로도 즉석에서 투약 반응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3. 幻覺性 藥物 投藥者에 대한 소변 檢查

오·남용 또는 약물 투약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소변 및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필요 한 감정절차를 밟고, 피의자의 주사흔 및 증거물을 사진 촬영하고 이 경우 소변 및 머리카락 채취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카락은 전두부에 30개 이상 뽑아야 하되 모근이 나오도록 채취하여야 한다.<sup>16)</sup>

지나치게 중독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중독현상을 나타내거나 환각상태에서 발작을 할 때에는 지정된 강제수용시설에 수용조치하여야 하며, 수용조치 직전까지 충분한 감시를 하며 자해 용구 등의 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색하여야 한다.

자살기도 등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고 은닉한 투약분이 없어졌을 때 절망감에 의한 자살동기가 되기도 하고 약기운이 떨어져 허탈감과 환각상태에 의거 자살하기도 한다.

외형상으로 중독자인 것이 짐작되더라도 짐작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수집은 메스암페타민 및 기구를 압수하고 소변에서 히로뽕 또는 대사물질이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소변을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대로 혈

15) 전경수, 마약류사범수사론, 월간 수사연구사, 1994, 237면.

1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약동물과 및 마약분석실 분석자료, 1991. 10.

액에 끓겨 들어가서 혈액의 흐름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각 장기에 진행되어 그 일부가 뇌에 들어감으로써 특이한 액리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각성 물질은 인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체외 인체 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의 대사는 사람에 따른 개인차는 물론, 과거 투약의 정도, 사용량의 다소 등에 따라 큰 영향이 있으며, 소변의 액성에 따라서도 배설량에 차이가 있다.

주사로 투약한 경우 4일 이내에 90%가 배설되고, 평균 22%가 대사되지 아니하고 24시간 내에 배설된다.

경구 투약의 경우 48시간까지 90% 내지 95%가 소변으로 배설되고 약 7일 후까지 소변 중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며, 상습자의 경우 10일까지 검출된 예도 있다.<sup>17)</sup>

투약 후 시간에 따른 메스암페타민의 함량은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3일 후 대부분이 배설되었으나 한 여성의 경우 14일 경과 후에도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소변 중 배설기간에 대하여 피의자 22명을 대상으로 매일 소변을 채취하여 실험하였을 때 소변에서 히로뽕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시기는 복용 후 5일 내지 11일 후로 사람마다 다르나 대부분 6일이 지난 후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의하면 사람마다 체질, 상습 정도, 사용량 등에 따라 소변 중 메스암페타민 배설시기 및 체내에서의 대사로 인한 타 화합물로의 변화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나 대체로 마지막 투약일로부터 1주일 전후한 시기까지 검출되고 2주간 정도는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소변검사를 현장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큐사인 시약에 플라스틱 피펫으로 3~4방울의 뇨를 샘플 윈도우(S)에 적가하면 2~5분 경과후 결과를 판독한다. 비교띠(C)와 시험띠(T) 모두에 붉은 색 띠가 나타나면 음성으로 판독하고, 비교띠(C)에만 붉은 띠가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독한다.

시약저장 방법은 실온보관 기밀 용기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인데 아큐사인 감정 시약으로 식별 양성반응이면 정확도가 99%이다.

시약의 종류는 메스암페타민 용인 MET, 데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 흡연 검사용 THC, 몰핀 · 코데인 · 헥로인 계열인 OPI와 코카인 흡입자 식별용인 COC가 있다.<sup>18)</sup>

17) 飛田清弘, 松浦恂澤, 「히로뽕사법과 그수사」 日世社, 1994, 192면.

18) 백산메디텍(주)자료, accusign im-doa series new one step urine test for drugs of abuse, watch us for other tests and new technology.

#### 4. 流通秩序 紊亂行爲 制裁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무면허 약사가 환각성 일반약물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사가 무면허 약사에게 판매토록 했을 경우에는 동법 제7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동법 시행규칙상 행정벌은 1회 판매시 업무정지 1월, 2회 판매시 업무정지 3월, 3회 판매시 업무정지 6월을 가한다.

텍스트로메토르판 계열인 러미나, 루비킹 등 7개 품목에 대해선 동법 제38조에 의거 약국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 및 의약품 판매업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동법 제76조 벌칙은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텍스트로메토르판 계열 약품을 판매시 약사는 1인 1일 1회 30정 이상 판매해서는 안 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을 가하게 되어 있다.

약물 관련 주무 감독관청은 이러한 폐해를 깊이 인식하여 사전 계몽과 예방은 물론 약사 윤리를 망각한 일부 약사들에게 평소 부단한 지도 감독이 요망된다.

#### VI. 結 論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의 대마에서 80년대의 필로폰으로 이어져 오다 90년대 들어와서도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등의 남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적 마약류와 함께 오늘날에는 합법적인 일반약물인 진해거담제 텍스트로메토르판을 제제로 한 러미나, 루비킹 등 환각성이 있는 약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 저명인사, 연예인, 기업인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어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환각성 약물에 대처코서 본고는 정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스암페타민과 로라제팜, 텍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약물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고 적법의료용인 이들 약물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약사들이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무관청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고, 환각성 약물은 모든 범죄 발생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특히 현장에서 오·남용자의 행동과 표정을 식별할 수 있는 아큐사인 활동방법과 이들 오·남용자에게 공급하는 밀매자를 색출하고 절대예방 경호에도 환각성 약물을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요인경호는 물론 사설경비원들에게도 약물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특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경호학이 개설되어 있는 제도적 교육상 피경호자의 정신건강에 침투 또는 관련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현대경호의 이론과 실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 국내문헌

- 김경빈, 「유홍업소 주변의 습관 중독성 물질 오남용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쟁기, 1994.
-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권 121호, 1991.
- 박희준 번역, 오오끼 고오스케, 「마약, 뇌, 문명」, 1991.
- 法務部, 「各國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제 98집, 1988.
- 법무연수원, 「마약류사범의 실태 파악」, 1989.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류의 실태와 수사」, 1986.
- 안영준, 「담배, 술, 마약」, 동환출판사, 1986.
- 이근명, 「마약실무」, 신우인쇄주식회사, 1990.
- 이승덕, 「마약」, 성바울로 출판사, 1990.
- 전경수, 「마약범죄예방과 수사방법」, 월간수사연구사, 1992.
- 전경수, 「히로뽕 사범 수사방법론」, 명문사, 1991.
- 전경수, 「마약범죄수사론」, 월간수사연구사, 1994.
- 김광익,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 제1집, 1983.
- 나 철, “한국고교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Vol 19, No 3, 1978.
- 민병근, 김현수,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정신의학회 제25차 종합학술대회, 1984.
- 서원벽, “마약류 남용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Vol 9, No 2, 1970.
- 신성태, “마리화나 정신병 일례”, 신경정신의학 Vol 11, No 3, 1972.
- 이정균, “습관성 약물중독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9, No 2, 1970.
- 전경수, “각성제시범 수사방법 고찰”, 중앙경찰학교, 1991.
- 전경수, “마약류 사범 수사문제점 및 방법연구”, 중앙경찰학교, 1990.
- 정대식 외 2명, “청소년 Dextromethorphan. HBr(R러미나) 남용”, 신경정신의학 Vol 25, No 4, 1986.

전경수, "마약류 남용의 원인분석 및 개인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앙경찰학교,  
1992.

#### ■ 국외문헌

飛田請弘, 松補恂・澤新, 「覺せい 剤事犯とその捜査」, 立花書房, 1976.

村上尚文, 「麻薬, 覚せい剤犯罪」, 日世社, 1982.

日本全國防犯聯合會, 「日本のドテツダ問題」, 1987.

日警察廳, 「警察白書」, 1985, 1986, 1989.

U. S. Department of Justic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RUGS. OF.  
ABUSE. 1984.

Khantzian, Eduardj.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of Addictive Disorders", Am  
J Psychiatry 142 : 11, Nov, 1985.

Goodman and Gilman,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Vol, VII, 1985.

## ABSTRACT

### Measures against Security Safety and Hallucinogenic Drug Crimes

By Jeon, Kyung Soo

Troublesome problems are being caused by hallucinogenic drugs which come not only from illegal narcotics but also from unprohibited general drug-kinds such as cough-remedy agents of textromerupan, namely, Lamina, Rubi-king and the likes.

Abuse and misuse of narcotics permeated into and threatens mental health of socially-known peoples, actor, actress, talents and businessmen as well.

This study especially dealt with problems related with Mesampetamin, Rurajaepam, Texstrometropan and Karisofrodol which affects mental behaviour, and considered counter-measures through analysis and developed appropriate system of goods circulation for guidance to be complied by the medicine professionals.

The guidance sought here is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ministries for further enforcement of crack-down of the drug crimes.

Arquesa in method is recommend as a method of identifying behaviors and facial expressions of abusers and misusers of narcotics at the spot in place. This study is directed to curtailing hallucinogenic drugs use for absolute preventive security by detecting out black dealers of narcotics supplying to the abusers and misusers.

There is a need of special education program to cut off the flow of narcotics or drugs crimes into official security force as well as private security personnel.

This study introduced a priority and emphasis of real augmentation to theory and practice of the modern scientific security which can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the guarded persons as well especially in the light of security safety curriculum at the school.